

修己治人の 構造로 본 許生の 삶

洪 承 和

目 次	次
I. 序 論	III. 참된 선비상의 摸索
II. 許生の 修己治人하는 삶	IV. 結 論

I. 序 論

연암은 「熱河日記序」에서 글 짓는 법으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했다. 寓言과 外傳이 그것이다. 우언은 은미한 진리를 밝게 드러내는 방향의 글이고, 외전은 밝게 드러난 일들에서 은미한 진리로 향하는 글이다.¹⁾ 우언의 경우 은미한 진리는 항상 선행하여 존재하고 그것을 드러내자면 托物의 수법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에 탁물하여 전개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 실재했던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상상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玉匣夜話」에 전하는 선비 허생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우언의 수법으로 이루어진 글이었다. 곧 연암이 허생이라는 한 인물에 의탁하여 자기가 품은 은미한 진리를 밝게 드러내고자 했던 글이었다.

그러면 연암이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은미한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 필자는 허생이라는 한 선비의 삶이 儒家의 보편적 이념이었던 修己治人の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글의 이해기준을 세우고 그 은미한 진리를 엿보고자 한다.

혹자는 허생이 齊家도 못했고 내점매석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했으니 선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암이 허생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 이러한 사소한 부정적인 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선비로서 자아와 세계에 대해 저야 할 책임은 어떠한가 할 것인가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주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에 대한 修己와 세계에 대한 治人の 책임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허생은 독서하는 선비였고, 그는 자아와 세계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존재였다. 그 사명감은 수기치인의 실현에 있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1) “由微而之顯故也 爲寓言之文者因之……由顯而人微故也 爲外傳之文者因之.” 「熱河日記序」(열하일기 上, 대양서적 1980, 33쪽).

이 짧은 연암이 허생을 통해 주로 보여주고자 한 것이 그러한 선비적 모습에 있음을 착안하고 그래서 허생의 삶을 수기치인의 구조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한 선비의 삶은 작자의 선비의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연암의 선비의식과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끌어 낼 수 있는 선비의 구체적 덕목은 무엇이며, 결국 연암이 주장하는 선비상은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의 해답으로써 이 한편 우언이 보여주고자 한 은미한 진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Ⅱ. 許生의 修己治人하는 삶

「허생전」은 「玉匣夜話」 일곱편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연암의 선비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儒家의 실천 윤리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信)과 의리(義)를 각 편 이야기들의 큰 줄기로 삼으면서 여관 옥갑에서 마지막으로 꼬집어 낸 연암의 허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처럼 네 단계로 구성된다.

㉔ 가난한 선비 허생이 과거는 보지 않고 십년의 계획으로 독서에 열중하던 중 아내의 구박에 못이겨 칠 년만에 중도에서 그치고 집을 나간다.

㉕ 집을 나온 허생은 변씨에게서 반냥의 거금을 태연자약하게 빌리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다.

㉖ 벌어들인 돈을 이용하여 나라 안의 많은 도둑떼를 모아 배에 싣고 빈 섬에 들어가 자신의 治人之道를 펴나.

㉗ 다시 돌아 온 허생은 변씨에게 쏜 돈을 갚고, 李浣을 상대로 사대부의 無信함을 나무래면서 선비로서의 삶을 산다.

이야기의 시작인 ㉔에서 허생은 조선조의 낙척한 선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준다.

허생은 남산 바로 밑 목적동에 살았다. ……초옥 몇 칸은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였으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했고, 아내의 샴바느질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내가 심히 굶주려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평생과거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독서는 왜 하나요? 허생이 웃으며 말하기를, “나의 독서가 아직 익지 않았소.” 아내가 말하기를, “匠人이 있지 않습니까?” “장인은 본디 배우지 않았으니 어떡하오?” “장사가 있지 않아요?” “장사는 밀천이 없으니 어떡하오?” 아내가 성 내어 나무래어 말하기를, “밤낮으로 독서하여 다만 어떡하오만 배웠소? 장인도 장사도 못하겠다면 도적질이라도 하오.” 허생이 책을 덮고 일어나, “아깝다! 내가 본래 독서에 십년을 기약했더니 지금 칠 년이구나.”하고 문을 나갔다.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허생의 주거환경과 가정살림은 연암 특유의 세밀한 묘사체로 구성됐다.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낡아 빠진 초가의 선비는 집안살림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하지 않고 두문불출 오직 독서에만 열중하며 안빈낙도하는 전형적 선비상을 보여 준다. 흠사 연암이 청빈한 가문에 태어나 돌아갈 논밭도 없이 숙맥을 구분 못하고

오직 독서에만 매달리는 모습이다.²⁾ 물질의 빈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함은 求道의 길을 걷는 선비의 엄한 계율이었다. 소위 安貧樂道는 인생의 좌우명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허생은 자신의 독서에 뭔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십년을 기약한 독서의 목적이 과거로 입신출세함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아내의 말로 볼 때 허생은 애초에 과거공부에는 뜻이 없었던 것이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물질적 궁핍에 굴하여 독서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리라 보인다. 아무튼 허생이라는 선비는 물질에 초연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선조의 전형적 선비상이라 하겠다.

허생의 빈곤에 대한 태도와 대조적인 것은 아내의 모습이다. 그의 아내는 샴바느질로 호구지책을 꾸리며 조선조 여인의 전형적 미덕인 순종의 도를 보였다. 그러나 극도의 빈곤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대든다. 장인도 장사도 못하곤했다면 도둑질이라도 하라 한다. 가난에 대한 두 사람의 대조적 모습, 한 사람은 반석같이 편안하고 한 사람은 삶의 기본 윤리마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에 기인하는 걸까? 그것은 곧 修身한 정도의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신에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독서의 유무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선비와 독서는 뗄 수 없는 관계였고, 허생은 십 년을 목표로 독서에 매진하고 있었다. 讀書修身은 선비의 중요한 과업이었던 만큼 허생이 읽은 글은 수신에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는 그렇지 못했으니 두 사람의 가난에 대한 대조적 모습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허생이 독서를 통해 수신한 내용은 무엇이며 또 무엇을 위해 독서했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허생이 연암의 분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암의 다음 글은 그것을 시사해 주는 점이 크다고 하겠다.

대저 독서하는 자는 장차 무엇을 할까? 할 짓은 재주를 넉넉히 할까? 문장의 명예를 넓힐까? 학문을 익히고 道를 논함은 독서의 일이요, 孝悌忠信은 학문을 익힌 결실이요, 禮樂刑政은 학문을 익힌 용도이니 독서를 하고도 결실과 용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학문을 익힌 것이 아니다. 학문을 익히는 데서 귀한 것은 결실(實)과 용도(用)이다.³⁾

연암은 독서의 목적을 孝悌忠信과 禮樂刑政 같은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實用에 두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허생이 수신한 내용과 독서의 목적은 자명해진다고 하겠다. 곧 호계충진과 같은 修己의 덕목으로 수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악형정의 治人之道를 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비가 먹는 데에 얽매이면 온갖 행실이 어그러진다⁴⁾고 했듯이 연암의 분신인 허생은 애초에 굶주림 따위엔 마음을

2) 燕巖集 卷 16, 「進課農小抄文」 참조.

3) “凡讀書者 將以何爲也 將以富文術乎 將以博文譽乎 講學論道 讀書之事也 孝悌忠信 講學之實也 禮樂刑政 講學之用也 讀書而不知實用者 非講學也 所貴乎講學者 爲其實用也.”(燕巖集 卷 10, 「原士」).

4) 燕巖集 卷 8, 放曠園外傳「自序」 참조.

두지 않았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선비로서의 사명감이 없는 아내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윤리에 어긋나는 뜻을 비추는 당연하다고도 하겠다.

허생이 십 년 기간을 두고 계획한 독서의 목적은 결국 修己治人의 학문을 완성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허생은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마침내 칠 년 만에 증도 포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을 나가게 되는데, 이 집을 나가는 사건은 일단의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뭔가 할 일을 갖고 집을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그의 원래 독서 계획기간은 십 년이었는데 십 년이라는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미 그 후의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십년의 햇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원래 생각했던 그 할 일을 하고자 나갔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할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나가기 전의 그의 이력을 생각해 보면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즉 집에서 독서를 통해 쌓은 수기치인의 實用之學을 사회에 펴는 일이었다. 집안에 있던 허생이 집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흙사 주역 乾卦의 潛龍이 見龍으로 변화하는 모습과도 닮았다. 곧 집 안의 허생은 修己하는 단계로서 건괘의 潛龍에 해당하여 군자의 덕은 갖추었으나 때가 아니므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은둔하는 모습이라 하겠고, 집 밖의 허생은 治人하는 단계로서 건괘의 見龍에 비유될 수 있는데, 군자의 덕을 갖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나 그 덕을 펴는 모습이라 하겠다.

㉔에서의 허생은 확실히 잠룡이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㉔로 전진하면서 허생은 엄청난 변모를 보인다. 이른바 見龍으로 전환이 된다. ㉔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은 허생의 借錢 행위와 商 행위이다.

선비가 남에게 돈을 꾸어 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선비가 장사를 하는 것은 당시의 보편적 관념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생은 장사를 한다. 이는 허생 개인의 큰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평생을 두문불출 독서에만 열중하던 일개 서생이 마치 오래 전부터 계획한 듯이 곧바로 한양 최고 부자인 변씨에게 가서 돈을 빌린다. 이 돈을 빌리는 행위에서 허생은 선비답게 일호의 비굴함이나 어색함이 없이 태연하고 담담하며 물질에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허생의 이러한 선비다운 모습은 이미 집안에 있을 때부터 기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허생의 작품외적 주재자인 연암이 “선비는 하늘이 내린 벼슬이며 선비의 마음(士心)은 오지부동한 뜻(志)이다. 그 오지부동한 뜻은 어떠한가 하면 권세와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현달해도 선비의 도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궁해도 선비의 도를 잃지 않는다.”⁵⁾고 한 자신의 선비정신을 허생에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하겠다.

허생의 차전 행위는 “不待物而自足者也”라고 한 변씨의 말처럼 궁해도 물질에 굽히지 않는 선비정신으로 특징 지을 수 있어 선비다운 체통을 고수했다고 하겠으나, 그 다음에 일어난 상행위는 당시 선비사회의 관념으로는 자존심을 꺾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그

5) “士通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不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燕巖集 卷 8, 放曠閣外傳「自序」).

러나 허생은 조금도 그러한 기색이 없다. 그의 상행위는 일련의 계획된 일처럼 일사 불란하게 진행된다.

내 집이 가난하여 욕실에 작게 시험할 바가 있으니 그대에게 만금을 꾸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 집이 가난하다는 말은 돈을 꾸기 위한 핑계이고, 중요한 것은 만금으로 무언가 시험해 볼 바가 있다는 말이다. 이 시험해 볼 바는 집안에서 수기치인의 학문을 탐구하던 潛龍 시절에 이미 구축된 것일 수 있다. 곧 잠룡시절 계획했던 십 년 독서 후의 할 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할 일을 위해 곧바로 雲從街로 달렸고 부자 번씨를 만나 돈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미리 계획됐다고 할 수 있는 그 시험할 바란 무엇일까? 그것은 빌린 돈 만금으로 장사를 하여 돈을 번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의 잠룡시절에 닦은 治人の 道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돈을 버는 작은 시험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治人の 道 실현이라는 큰 시험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 治道를 펴는 일은 ㉔의 이야기에서 진행되는데, 허생이 선비로서 부끄럼 없이 태연자약하게 상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훌륭한 심리적 據點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생의 상행위는 결국 선비 본연의 할 일인 治道를 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富를 위한 개인적 목적의 수단일 수는 없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비도 상업을 할 수 있다는 혁신적 생각을 하면서 행한 그의 상행위가 지니는 도덕성 여부의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매점매적이라는 행위의 비정상성 때문에 그의 선비적 면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에 대해 좀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그의 행위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곧 그의 비정상적 상행위가 지니는 對社會의 영향과 治人之道의 실현이 갖는 사회적 영향 사이의 輕重 문제를 따져 보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허생이 매점한 과일과 말총은 잔치나 제사 그리고 衣冠에 매우 소중히 쓰이는 물건들로서 모두 禮를 차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것도 민생의 糊口之策 해결이라는 절박한 상황과 부딪칠 때는 오히려 禮의 가벼운 것에 불과하다. 衣食이足해야 예절을 안다고 했지 않은가. 과일과 말총은 없어도 命은 유지할 수 있지만 치도의 실현을 통한 호구지책이 해결되지 않고는 命도 禮도 잃게 된다. 이것이 백성의 삶인 것이다. 「孟子」에 이르기를 “먹는 것의 重함과 禮의 輕한 것을 비교하면 어찌 먹는 것만이 重할 뿐일까? 色(혼인)의 重한 것과 禮의 輕한 것을 비교하면 어찌 色(혼인)만이 重하겠느냐?”⁶⁾고 했듯이, 허생은 말총과 과일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벌어질 禮의 가벼운 것을 희생하고, 나라 안의 群盜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먹는 것과 色(혼인)을 해결하기 위해 利用厚生正德의 치도실현을 택했던 것이다. 결국 허

6) 取食之重者與禮之輕者而比之 奚翅食重 取色之重者與禮之輕者而比之 奚翅色重”(孟子 告子章句下).

생이 선택한 매점매석의 상행위는 禮의 가벼운 것을 희생하여 食色の 무거운 것을 취하기 위한 일종의 權道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이미 聖賢에 의해 인정된 道이다.” 곧 허생의 상행위가 지니는 비정상성은 작품의 내용구조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의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작품에서 따로 떼내어 봄으로써 생기는 부정적 처리와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허생의 선비적 면모에 대한 의심은 이제 지양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㉔의 이야기는 치인의 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생은 늙은 뱃사공을 만나 해외의 사람이 살만한 무인도를 묻는다. 사공이 섬이 텅비어 있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 하느냐 하고 묻자, 답하기를 “덕이 있는 자에게는 사람이 따르게 되네. 오히려 덕이 없음을 두려워 할 일이지 사람이 없음을 근심할 것은 없네.” 하였다. 「論語」에서 “덕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⁷⁾는 뜻으로 표현된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은 허생이 선비로서 자신이 쌓은 德에 대단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무인도에 두고 있는 그의 이상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덕으로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 치인의 도를 무인도에 실현하고자 하는 뜻이다.

마침내 그는 변산의 도둑떼를 찾아가 그들이 도둑질을 하게 된 원인을 일문일답을 통해 드러내는데, 이는 이미 허생이 예정한 방향의 문답 진행이었다.

아내가 있느냐? 없습니다. 발이 있느냐? 발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어찌 괴롭게 도둑질을 합니까? 허생이 말하기를, 그런줄 안다면 어찌하여 아내를 얻어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농사를 짓지 않느냐. 살아서 도적의 이름을 듣지 않고, 거처함에 아내와의 즐거움이 있으며, 행함에 쫓기고 붙잡힐 걱정이 없고, 길이 의식의 넉넉함을 누릴 것이 아니냐? 도적이 말하기를, 어찌 그와 같기를 원치 않겠습니까마는 단지 돈이 없을 뿐입니다.

도둑질의 원인은 결국 빈곤이었다. 그 절대적 빈곤이 서민들로 하여금 참람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다. 「論語」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궁한 것을 굳게 지킬 줄 알지만 소인은 궁하게 되면 참람하게 된다.”⁸⁾ 허생과 같은 선비는 군자이기에 잠용시절 그렇게 곤궁했지만 그 궁함을 잘 참고 오히려 安貧樂道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인인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흡사 허생의 아내가 궁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강요하듯이 참람해지게 되는 것이다.

허생은 이들 도둑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었다. 이 돈만 있으면 그들을 궁핍으로부터 구제하고 부덕한 행위를 그만 두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으리라. 그가 상행위를 해서 번 돈은 결국 이들 궁핍한 서민들에게 이롭게 씬으로써(利用)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厚生) 마침내는 그들로 하여금 덕을 바로 잡아(正德) 참람한 짓을 그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

7) “執中無權猶執一也 所惡執一者 爲其賊道也 舉一而廢百也”(孟子 盡心章句上).

8) “德不孤必有隣”(論語 里仁).

9) “君子固窮 小人窮斯濫矣”(論語 衛靈公).

이다.

허생은 돈을 들어 그들로 하여금 아내와 소를 얻게 하고, 부인도로 이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했다. 농사가 잘 되어 삼년 먹을 양식을 저축해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매마침 기근이 든 長崎島에 가지고 가서 팔아 銀 백만 냥을 벌었다. 그리고 그는 탄식하며 “이제야 내가 작은 시험을 끝냈구나”하고 말했다. 가난한 선비 허생이 변씨에게서 만냥을 빌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써 표방했던 작은 시험은 곧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는 큰 시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서민들을 상대로 먼저 이용·후생의 도를 펴고, 이어 정덕을 이루는 治人の 과정은 선비가 아닌 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다. 道에 뜻을 둔 선비가 의식의 궁핍함을 싫어함은 孔子의 가르침이 아니었기에¹⁰⁾ 선비는 애초에 자신을 위한 이용·후생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서민에게는 이용·후생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용·후생을 통해 참람함을 막았다고 해서 곧 바로 정덕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참람함이 없어진 것은 최소한의 민생안정을 성취한 것이다. 정덕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인의 도를 가르쳐야 이루어지는 것이니 때문이다. 어쨌든, 서민에게 있어서 이용·후생은 정덕을 이루기에 앞서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치인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후생 후에 무인도에서 서민들이 성취한 정덕은 최소의 것이었다. 선비인 허생의 경지에까지 오르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생각은 먼저 부유하게 한 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좁고 나의 덕도 부족하여 나는 이제 떠나려 한다. 아이를 낳으면 손가락을 오른 손에 잡도록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났으면 음식을 먼저 먹도록 하라. ……글을 아는 사람을 골라내어 함께 배를 타고 나오며 말하기를, 이 섬에서 재앙을 끊어버려야 한다.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지으려 한 것은 민생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성인의 도를 가르쳐 수준 높은 德을 이루고자 한 의도였다. 그러나 땅이 좁고 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떠나게 되는데, 이는 「大學」에서 말하는 明德을 밝힌 덕 높은 선비가 자기보다 덕이 못한 백성을 자기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治人の 사명을 다하는 태도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만약 치인의 사명을 완수하려 했다면 허생은 당연히 진분이 탈라졌을 것이고, 그 진분은 도저히 섬 밖의 육지인 당대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이 좁고 덕이 부족하다는 그 핑계가 사실은 그 이면에 이러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중세의 시대적 제약 속에 한 선비의 치인의 포부는 그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그 대신에 허생은 떠나기에 앞서 최소한의 예절을 가르쳤다. 그것마저 없으면 금수에

10) “士志於道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論語 里仁).

가까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섬에서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글을 아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것은 허생의 예리한 치인의 식견에서 나온 처사이다. 「論語」에서 “행하고 남는 힘이 있거든 글을 배워라”¹¹⁾고 한 말이 있다. 덕행을 충실히 하여 인간적 바탕을 튼튼히 한 뒤에 글을 배워야 그 글이 인간적 바탕과 조화가 되어 훌륭한 빛을 발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섬의 무리들은 얼마 전만 해도 도둑이었다. 비록 지금은 도둑이 아니라 할지라도 글을 아는 자는 그 인간적 바탕 즉 덕행이 충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만 배워 지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글은 아무 효력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實(실)이 없는 虛飾(허식)만이 싹트고 결국은 참람한 짓을 저질러서 재앙을 불러 들인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예절만으로도 족한 것이 서민의 생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허생은 그것을 가르쳤고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아는 자를 모두 데리고 나왔던 것이다.

무인도에서 서민을 상대로 치인의 도를 편 허생은 미흡하지만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 돌아온 허생이 해외에서 번 돈으로 다시 나라 안의 가난하고 호소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후부터 이야기는 새로이 진행된다. 이것이 맨 끝 ㉔의 이야기이다.

선비의 治人之道란 「大學」에서 말한 것과 다름이 없다. 자신의 明德을 밝히고 더불어 타인에게도 그것을 베풀어 그들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오르도록 하는 것이 「大學」의 치인지도이면서 선비의 그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교육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치인의 도를 펴는 데는 앞서서건 움직이면서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상관없다. 다만 가르치고 다스릴 자와 가르침 받고 다스려질 자가 있으면 그만이다. 이제까지 허생의 치도는 주로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부터의 그의 치도는 권세와 부를 가진 자를 향하여 펼쳐진다. 또한 지금까지의 치도는 집밖에서의 활동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부터는 집안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그의 치도는 화해적이고 따스한 온정이 스며 있는데 비하여, 집으로 돌아와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權富貴家에 대한 치도는 예리한 칼처럼 날카롭다.

여기서 권부귀가란 李浣과 卞氏를 두고 말한다. 이들 둘은 서로가 잘 아는 사이로 지낸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를 지닌 자와 권세를 지닌 자의 결속은 그 당시에든 그러했던 모양이다. 이들은 공허 허생의 초가에서 피교육자의 모습으로 허생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① 재물로 하여 얼굴이 윤택한 것은 당신의 일일 뿐 만양의 돈이 어찌 道를 살지게 하리오.

② 내가 한 배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독서를 끝내지 못하고 당신에게 만금을 꾸 것인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오.

③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장사치로 보시오. 하고는, 옷을 떨치고 가버렸다.

④ 어찌 재물 때문에 마음을 수고롭게 하리오.

11) “行有餘力 則以學文”(論語 學而).

⑤ 변씨는 이때부터 허생의 부족한 것을 살펴서 곧 자신이 가져다 주었고, 허생은 혼연히 그것을 받았는데, 간혹 지나치게 많으면 싫어하면서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제앙을 주는거요라고 했다.

이 인용문들은 모두 변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들이다. 그 내용이 전부 재물과 관련된 허생의 태도이다. 하나같이 재물을 멀리하는 투철한 선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위 인용문의 ①②③은 무인도에서 돌아온 허생이 나라 안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두루 번 돈을 베풀고도 십만 냥이 남자 그것으로 변씨에게 진 만냥의 빚을 갚으면서 한 말이다. 주지하듯이 변씨는 나라 안의 큰 부자이다. 그 부자에게 재물과 선비의 관계를 說 하면서 오래 전에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부자와의 ‘信’을 지키는 선비의 모습이다. 孝悌忠信으로 수신의 근본을 삼은 선비된 자가 남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信’이었다. 전술했듯이 「옥갑야화」의 일곱편 이야기는 그 공통점이 모두 ‘信’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연암이 허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앞의 여섯 이야기에서 언급된 ‘信’의 문제를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 ‘信’의 덕목은 허생 이야기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생에게 있어 치인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곧 서민과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 권세자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이들을 상대로 허생이 실천해야 할 덕목은 孝도 悌도 忠도 아닌 ‘信’이었기 때문이다. 앞의 무인도에서 허생이 보여준 것도 따지고 보면 치인의 도를 지닌 선비가 서민에게 져야 할 책임을 완수한 것이라 하겠고, 그것은 다름아닌 선비의 서민에 대한 ‘信’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돌아와서 변씨에게 그 진 빚을 갚음은 오히려 작은 일이면서도 가난한 서민과 친분을 달리한 권부귀자에게 선비의 ‘信’을 보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信’이 알게 모르게 상대에게 감화되어 갈 때 치인의 도는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재물과 허생의 관계는 재물과 선비의 관계이다. 「論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비는 道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재물에 연연해 하는 정이 있으면 도가 그 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재물로 얼굴이 윤색한 것은 선비 정신이 없는 변씨에게나 있는 일이지 선비 허생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모두 남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하여는 한 톨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선비에게서 재물이란 치인을 위해서는 유익하겠지만 자신의 道를 위해서는 해로울 뿐이었다.

허생과 변씨는 그 후 몇해를 계속 만나는데, 한 번은 변씨가 찾아와 물기를 “처음에 선생은 어떻게 내가 만냥의 돈을 내놓을 줄 알고 와서 달라고 하였습니까?”하니, 허생은 다음처럼 대답했다.

꼭 당신이 주지 않았더라도 능히 만냥을 가진 자는 다 주었을 것이요. 내가 스스로 내 재물을 헤아리건데 족히 백만냥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내가 어찌 안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능히 나를 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니 반드시 더욱 부유해질

것ियो. 이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니 어찌 주지 않을 수 있겠소. 나는 만냥의 돈을 받아 그 복에 의지하여 실행했으므로 성공한 것이요. 만약 하늘의 명이 아니고 내 사사로운 생각으로 했다면 그 성패는 알 수 없는 것이요.

이 답변에서 허생은 선비로서의 경륜과 능력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기다리는 在野 선비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사회에는 在野의 선비에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는, 不世의 보배를 품고 시대를 구제할 수 있는 경륜을 가졌으나 조출히 도를 즐기면서 마치 껍 속에 보옥을 감추고 사기를 기다리는 유형의 선비이고, 둘째는, 스스로 배운 것이 부족함을 알고 학문을 구하여 나아가고, 스스로 재능이 넉넉하지 못함을 알고 그 재능의 향상을 구하며 수양하여 때를 기다리는 유형이고, 셋째는, 고결하게 맑고 곧아서 세상의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영원히 속세를 등진 유형의 선비가 그것이다.¹²⁾ 이 중에서 허생은 첫째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을 자부하기에 그는 나를 능히 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니 더욱 부유해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이다. 그리고 탁월한 재능을 지닌 재야의 선비허생은 백만 냥을 벌게 된 자기의 성공을 天命에 돌리고 있다. 천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허생은 천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私欲을 물리칠 정도로 수신이 잘 된 경지의 인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즉 인간의 마음에는 天命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私欲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수신이 잘 된 허생은 私欲(人心)을 물리치고 天命(道心)을 따른 때문에 성공했던 것이다.¹³⁾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천명 사상은 중세에 이르러 성리학의 사변적이론의 바탕 위에 存養省察의 실천적 수양을 통해 더욱 그 힘을 발휘했다. 천명은 곧 인간의 本然之性이고 그 본연지성을 잘 길러서 실천하는 것이 당시 선비들의 필수적 과제였다. 허생은 그러한 선비들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잘 실천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곧 선비라는 명분에 걸맞게 그 실상을 잘 구비한 인물이라 하겠다.

번째는 어느날 정승 이완을 데리고 왔다. 허생은 이완을 문밖에서 한참을 기다리게 한 뒤에야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손님과 초면례를 치를 생각도 않고 당당하게 그대로 앉아 있다. 흡사 사대부 이완과 무슨 맺힌 감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런 점은 허생이 평소에 사대부 계급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불만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이완이 허생에게 요구한 치세의 방도에 대해 허생이 다음처럼 그것을 제의했는데, 이들 모두에 대해 이완이 거부한 것을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12) “退而自守者 其品有三 懷不世之寶 蘊濟時之具 翫樂道 韞懷待賈者 天民也 自度學不足而求進其學 自知材不優而求達其材 藏修待時不輕自售者 學者也 高潔清介不屬天下之事 卓然長往與世相忘者 隱者也.”(栗谷集 雜著「論臣道」).

13) 여기서 私欲이란 장사하여 번 돈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을 말하고, 天命이란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씬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① 그러면 당신은 임금의 신임 받는 신하이군요. 내가 마땅히 와룡선생을 천거하겠는데 당신은 임금을 청하여 삼고초려하시게 할 수 있겠소?

② 명나라 壯士들은 조선이 오랜 은혜를 입은 존재인데, 그 자손이 많이 망명하여 와서 홀아비로 떠돌고 있소. 당신은 능히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원세 있는 이들의 집을 빼앗아 그들이 살게 할 수 있겠소?

③ 천하에 대의를 세우고자 하면서 천하호걸과 먼저 사귀지 않는 자는 없고,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하면서 먼저 첩자를 쓰지 않고서도 능히 그것을 이룬 자는 아직 없었소. (그러니 국내의 자제들을 뽑아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혀 유락시키고, 장사꾼을 보내어 그들의 허실을 탐지해야 함을 말함)

이른바 時事三難의 내용들이다. 첫째의 제의에 대해 이제까지 평자들의 의견은 대부분 인재등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허생이 선비로서 ‘信’의 덕목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점으로 볼 때는 달리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 곧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팽배해 있던 북벌론의 공허한 의침을 드러내 보이는 허생의 의도된 제안으로서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실제의 행동 사이의 괴리를 꼬집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북벌을 성공하려면 와룡선생과 같은 인재, 곧 앞에서 언급한 선비의 세 유형 중 보옥을 감추고 사는 자를 기다리는 절세의 정륜가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허례와 체면에 묶여 삼고초려의 미담을 돌아보지도 않는 사대부들을 겨냥한 힐난의 소리이다. 선비 사회의 대인 관계는 ‘信’으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과 실상이 어긋나는 그들의 無信한 모습은 선비 허생의 눈에는 매우 역겹게 보였으리라. 그래서 그는 명분과 실상이 어긋나는 李滄을 두고 임금의 ‘신임 받는 신하(信臣)’라고 하면서 비꼬고 있다. 결국 이완은 명분은 信臣이면서 실상은 허생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無信한 신하가 되고 말았다.

둘째의 제안에도 이완은 어렵다고 하면서 거부한다. 거부하게 함으로써 명나라의 은혜에 대해 무관심한 사대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선비는 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갚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信義있는 모습을 지닐 수 있다. 더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제 그 나라가 망하여 없어졌다고 해서 선비가 신의를 저버려서야 되겠는가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완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無信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셋째의 제안은 북벌을 성공하자면 모든 허례와 체면을 버려야함을 역설한 것이다. 그러나 이완은 이것마저 나라의 예법을 내세워 거부한다. 내세운 명분은 북벌을 통한 국치를 갚는 일이면서 그 실상은 그것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 역시 명분과 실상의 어긋남으로써 사대부 계급의 無信함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가 담긴 제안이었다.

소위 수기치인의 학문을 했다는 사대부 治者들의 길다르고 속다른 이중적 행동을 드러내고자 한 허생의 의도적인 세 가지 제안에 대해 이완은 하나 같이 어렵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허생은 사대부 이완을 준열히 꾸짖는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일러주었던만, 너는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스스로 ‘信臣’이라고 하니, 신의 있는 신하란 참으로 이와 같은가? 이런 늙은 배어버려야 한다고 하며,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 찌르려 하니, 공이 크게 놀라 뛰어 일어나 뒤흘 창문으로 달아나 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가보니 이미 집을 비우고 떠나 갔더라.

신임받는 신하의 ‘信’은 수기치인의 학문을 배운 선비계층에서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덕목 중의 하나이다. 孝悌忠信과 禮樂刑政을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건만, 이완은 모든 덕목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信’의 덕목을 상실했다. 겉으로는 信臣이면서 속으로는 信臣이 아닌 존재에 대한 허생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선비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이 없는 존재는 배어 없애야 한다는 그의 분노는 당시의 사대부 사회 전체에 대한 준열한 비판의 외침이다. 「論語」에서 子貢이 孔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식량과 군대와 백성의 믿음을 갖출 것을 말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차례로 없애야 한다면 무엇부터 없애야 할까요 하고 묻자, 먼저 군대를 없애고, 다음으로 식량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며, 治者가 백성으로부터의 믿음을 잃으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¹⁴⁾ 허생은 治者인 사대부에게 이렇듯 중요한 ‘信’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완은 그것을 받아 들일 만한 信臣이 못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허생은 이완에게 걸었던 일루의 희망이 좌절되자 집을 비우고 떠나게 되는데, 이는 허생이 무인도에서 서민을 상대로 이용·후생·정덕의 치도를 펴면서 이용·후생은 이루었으나 정덕은 완수하지 못한 것과 같은 시대의 념을 수 없는 벽을 절감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동시에, 가슴에 절세의 경륜을 품고도 그것을 사는 자를 만나지 못하자, 독서하며 안빈낙도하는 처음의 허생으로 영원히 돌아감을 뜻한다고 하겠다.

㉔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았다. 이야기는 허생과 변씨, 허생과 이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변씨와 이완은 공히 허생을 찾아와 가르침을 받는 피교육자적 모습을 지녔는데, 바꾸어 말하면 허생이 그들 둘을 상대로 자신의 사상과 경륜을 펴면서 治人하는 양상이었다. 허생은 변씨와 이완 같은 권부귀가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갖는데, 부자 변씨에 대해서는 재물에 살고 죽는 그의 모습을 비꼬고 있으며, 사대부 권세가인 이완에 대해서는 그의 無信함을 준열히 꾸짖고 있다. 그러나 허생의 변씨와 이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비교해 보면, 변씨에 대해서는 보다 온정적이다. 그에게는 선비와 재물, 선비와 신의, 선비와 능력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보여주면서 그 분위기가 화해적이다. 일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그 전체 분위기는 따스하고 화해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완에 대해서는 그를 만날 때부터 냉담하게 대하면서 사대부와 ‘信’의 문제를 제안하더니, 마침내는 분노를 터뜨리는 관계였다. 왜 그러했을까? 그것은 허생

14) “子貢問政 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論語 顏淵).

의 선비정신과 관계가 있다. 즉 ‘信’을 소중히 여기는 선비 허생이 볼 때, 애초에 장삿꾼으로 출신하여 수기치인의學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변씨가 오히려 금전 문제에 신의를 보인 반면, 修己治人之學을 배워 입신출세한 사대부 이완은 누구보다 ‘信’의 덕목을 잘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상에 나타난 용인 선비 허생을 大人으로 알고 선뜻 거금 만냥의 信義를 세운 변씨와, 見龍이요 大人인 허생이 제안한 치세의 경륜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無信함만 드러낸 이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 네 단계로 분석해 본 「옥갑야화」 내의 허생에 관한 이야기는 짧게 표현하자면 허생이라는 한 선비가 그의 수기치인의 도를 실현하고자 한 치열한 정신구조를 보여 주는 글이었다.

선비 허생이 가난에 흔들리지 않고 십년을 목표로 독서에 몰두함은 수기치인의 학을 닦는 치열한 선비정신이었고, 주역의 乾卦 初九의 때를 기다리는 潛龍의 모습이었다. 自彊不息하던 중 아내의 구박에 못이겨 완전한 때를 만나지 못한 채(십년의 독서계획을 못채우고 칠년만에 나온 일을 말함) 見龍이 된 허생은, 大人을 알아보는 변씨에게서 만냥을 받아 당당하게 상행위를 하는 새로운 선비상을 보이면서, 이용·후생·정덕의 치도를 서민들에게 퍼서 선비의 서민에 대한 책임 곧 ‘信’을 다했다. 그러나 때가 덜 된 시기에 출현한 탓인지 이용·후생은 실현했으나 정덕은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마는 치도의 시대적 한계를 볼 수도 있었다. 그 후 돌아온 허생이 장사꾼 변씨에게 빚진 만냥의 신의를 열배로 갚고 그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재물, 상행위, 선비의 능력 등을 말해주면서 치도를 뒀다. 변씨에 대해 격의 없이 화해적이던 허생이 그의 소개로 만난 사대부 이완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대하면서 사대부와 ‘信’의 문제를 가지고 치도를 퍼는 데, 이완은 見龍이요 大人인 허생의 치세 경륜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사대부의 無信함만 드러내자 허생은 준열히 그것을 꾸짖는다. 무인도에서 서민에 대한 정덕을 완수하는 데는 실패했듯이, 여기서도 사대부의 폐쇄적 관념이라는 시대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이것도 주역으로 말하자면 때가 덜 된 시기에 見龍이 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허생은 결세의 경륜을 품은 채 처음의 潛龍시대로 영원히 숨는다.

그러면 이러한 수기치인의 구조를 가진 허생의 이야기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다음 장에서 지은이 연암의 선비정신과 관련하여 허생의 삶을 검토해봄으로써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참된 선비상의 摸索

연암과 허생은 여러모로 서로 닮은 꼴이다. 연암과 허생은 둘다 선비이고 독서에 독실했다. 선비이면서 독서에 독실한 자를 연암은 ‘雅士’라고 말했다.

내가 소위 ‘雅士’라고 하는 자는 뜻이 어린아이와 같고, 모습이 처녀와 같아서 한 해를 마치도록 그 문을 닫아 걸고 독서하느니라.¹⁵⁾

허생이 두문불출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연암이 평생 독서를 좋아했던 모습은 방문을 닫아 걸고 어린아이처럼 전일하게 처녀처럼 굳게 지키며 어떠한 외부상황에도 흔들림없이 독서하는 ‘雅士’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사회에서 선비로서 처세하려면 독서는 필수적 요소였고, 그 독서의 근본 목적은 수기치인에 있었다. 수기치인은 선비로서 大人이 되고자 한다면 필히 수행해야 할 條目이었고, 독서는 선비와 수기치인을 맺어주는 중요한 매개물이었다.

특히 연암은 科擧보는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독서에 몰두했었는데, 과거를 포기했다는 것은 수기와 치인에 별 도움이 없는 駢儷나 功令의 글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고, 반대로 수기치인에 도움되는 六經을 중심한 경전을 독서의 본령으로 삼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¹⁶⁾ 또한 그는 수기치인의 학문을 實用的 학문으로 보고, 실용에 별 도움이 없는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즉 性命과 理氣를 논하다가 性情이 먼저 무너지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¹⁷⁾ 연암의 모습은 이처럼 당시 양반의 다수가 견던 변려문 내지 공령문의 길이나 사변적인 성리학의 길에서 벗어나, 경전을 중심으로 古人的 유풍을 좇으며 수기치인의 실용적 학문에 전념하는 선비상을 지녔다. 이러한 그의 선비상이 그대로 허생의 수기치인하는 삶으로 반영되었다고 하겠는데, 그러면 연암이 생각했던 수기치인의 선비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지닐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연암은 독서의 목적을 孝悌忠信의 實과 禮樂刑政의 用에 두었다. 효제충신은 修己의 덕목이고 예악형정은 治人의 항목이다. 효제충신의 實은 예악형정의 用을 규정짓는 덕목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중 연암은 ‘信’의 덕목을 아주 소중히 여긴 것 같다. 즉 연암은 이 ‘信’에 큰 비중을 두고 선비상의 구체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독서한 선비로서 信이 없으면 참다운 선비가 될 수 없었는데, 당시 이들은 僞儒니 假儒니 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信은 앎과 행함의 일치에 의하여 드러나는 덕목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선비인 척하면서 속으로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자를 僞儒니 假儒니라고 불렀던 것이다.

연암은 이 ‘信’이 없는 선비를 몹시 싫어하였던 것이니, 그가 남긴 放瑯閣外傳의 ‘傳’에 선비 사회의 僞德을 풍자함으로써 名實相反의 無信함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비중 있게 나타난다든지, 「虎叱」의 북곽선생을 길과 속이 다른 거짓 선비로 몰아 꾸짖는 이야기에서 그러한 점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옥감야화」의 일곱 편 이야기의 주된 호

15) “吾所謂雅士者 志如嬰兒 貌若處子 終年閉其戶而讀書也”(燕巖集 卷10, 「原士」).

16) 실제로 過庭錄에는 “賢謙嘗言 吾鄉質實 士不知經史之爲本 及聞先生教誨 始知功令之外有文章 文章之上有學術.”라고 하여, 연암이 경전을 독서의 근본으로 삼고, 학술의 차원으로까지 심화시켰음을 알게 한다.

17) “若復高談性命 極辨理氣 各主己見 務欲歸一 談辨之際 血氣爲用 理氣纒辨 性情先乖 此講學害之也.”(燕巖集 卷10, 「原士」).

름은 ‘信’의 덕목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 許生에 관한 이야기는 선비 허생의 ‘信’과 사대부 李浣의 ‘無信’을 대립시키는 이야기로서 연암의 ‘信’에 대한 생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이었다. 독자로 修身한 선비 허생이 도적이 된 서민을 위해 利用, 厚生, 正德의 治道를 펴면서 선비의 서민에 대한 도리를 다한 것이나, 치도를 펴고 돌아온 허생이 끈 돈을 갖고, 재물에 초연한 모습으로 道를 지키며 변씨와 이완을 상대로 가르침을 펴는 모습은 선비의 명분과 그 실상이 일치하는 ‘信’을 보인 것인 반면, 사대부 이완은 스스로 信臣이 되었으면서도 허생이 권유한 사대부의 ‘信’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모두 거절함으로써 명실이 상반되는 자기의 無信함만 드러내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보이 고자 한 연암의 의도는 선비로서 ‘信’의 덕목을 닦은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실권을 내보여야만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야기 속에서 名實이 상반되는 자를 싫어하는 그의 모습은 그의 실제 생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過庭錄은 그것을 다음처럼 전하고 있다.

先君께서는 젊으셨을 때부터 말솜과 의론이 엄정하셨고, 세상에서 겉으로는 엄한 척하며 속으로는 약하고, 浮沈하여 아첨을 구하는 자를 보시면 참지 못하고 곧 해학과 담소 속에서 풍자 하셨다. ……의삼촌 芝溪公 李在誠이 지은 祭文에 ‘가장 옹수하고 겹하기 싫어했던 자는 거짓 선비인 鄉愿과 바르지 못하고 썩어서 서로 허물하고 원망하는 자들이었다.’고 하였으니 先君의 本末을 잘 나타냈다고 할만하다.¹⁸⁾

겉으로는 엄한 척 하며 속으로는 약한자, 그리고 鄉愿은 이중인격자의 표상이라 할 만 한데 이들이 모두 명실이 상반되는 자들인 셈이다. 연암은 이들을 몹시 싫어했던 것이다. 명분과 실상에 대한 것을 글 속의 중요한 이야기거리로 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연암은 특히 그것을 강조하여, 명분과 실상의 일치 곧 ‘信’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까지 중요시한다.

벗이 오류의 댐 고틀머리에 있는 것은 그것이 멀거나 낮은 것이 아니다. 마치 五行의 ‘土’가 四象의 어디에나 가서 붙어서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부자 사이의 친밀과 군신 간의 의리와, 부부간의 분별과, 장유 간의 차례도 모두 ‘信’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시행될 것인가? 만약 윤리가 윤리로서 시행되지 않는다면 벗이 이것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오류의 댐 뒤에 있어서 이것을 통괄하게 된다.¹⁹⁾

우리의 전통윤리인 朋友有信은 ‘信’의 덕목을 강조한다. 이 ‘信’은 五常 중의 ‘信’으로서 仁義禮智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의 기능을 갖고 있다. 마치 五行의 土가 있음으로써 水火木金과 春夏秋冬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모든 덕목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는 ‘信’은 이처럼 주역의 오행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연암이 생각한 선비상

18) “先君自少時 言議嚴正 見世之色厲內荏浮沈取媚者 不能容忍 輒譏諷於詼諧談笑之間……內舅芝溪李公在誠祭文所云 最所不能酬接 鄉愿曲鍼腐芥胥致尤怨者 可謂盡先君之本末矣.”(過庭錄, 韓國漢文學研究 6집 7쪽).

19) “友居倫季 非厥疎卑 如土於行 寄王四時 親義別叙 非信奚爲 常若不常 友迺正之 所以居後 迺殿統斯.”(燕巖集 卷8, 放謫閑外傳「自序」).

도 결국 이와 같이 모든 덕목에 두루 응하는 능력을 지닌 ‘信’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

선비와 ‘信’의 문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시비거리였던 만큼 연암이 특히 중요시했다고 해서 연암만의 독특한 생각일 수는 없다. 다만 그의 ‘信’에 대한 철학적 생각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생각한 ‘信’이 있는 선비는 모든 인간관계에 두루 응하여 五倫을 포함한 모든 덕목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한 존재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명확히 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선비 허생이 도둑이 된 서민들과 부자 변씨, 사대부 이완에 두루 응하여 선비로서의 명실상부한 ‘信’을 다함으로써 仁과 義의 덕목까지도 성취함은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연암이 허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룬 선비와 ‘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전통의 도덕 문제를 제시한 것인데, 전통 선비상의 재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허생이야기에서 또하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개방적인 선비상’에 대한 것이다.

아득한 옛날 堯舜 시대에는 선비라는 말이 없었다. 그저 백성이 있었을 뿐이다. 백성 중에 뛰어난 이는 벼슬을 했고, 그렇지 못한 이는 農工商에 종사했을 뿐이었다. 벼슬하던 사람도 그만두게 되면 물러나 다시 농·공·상에 종사했다. 그 후 夏·殷·周 삼대에 이르러 예절이 번거로워지면서 명분이 달라지고 명분이 달라지면서 신분계급이 나뉘어졌는데, 한 번 덕이 높아 벼슬한 이는 세습하여 부귀를 누렸고, 벼슬하지 않은 이 중에도 옛 성인의 법을 지키고 仁義禮樂을 業으로 삼게 된 자가 있어서 드디어 士와 大夫의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한 번 이 명칭이 생기게 되자 생활의 방법에 농공상과는 분명한 구분이 생겼고 또한 여기에 귀천이 뒤따르게 되었다.²⁰⁾

우리나라에도 백성의 종류에 士農工商의 네 부류가 생기고 귀천이 뒤따르자, 한 번 독서하여 士가 되면 다시는 천한 농공상에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독서하는 士의 신분은 자손에게로 세습화 되었다. 이러한 선비의식은 조선조 사회의 오랜 전통이 되어 선비는 농공상에 군림하는 자세로 그들을 천시여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兩班傳」의 두번째 文券에서는 아무리 궁한 선비일지라도 이웃집 소를 끌어가다가 밭을 갈게 하고, 동리 백성을 시켜 김을 매게 한다든지,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체벌을 가하는 등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선비계층이 생기고 난 후로는 늘 농공상을 천시해 왔고, 선비가 농공상의 직분에 종사하게 될 경우 그것은 자신의 커다란 수치였으며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다. 그러나 개방적인 선비상은 이러한 고정화되고 폐쇄화된 관념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즉 허생이 선비로서 상행위를 한 것은 그러한 폐쇄적 관념의 벽을 부수는 개방적 행위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허생의 상행위는 어디까지나 선비로서의 상행위였다는 것이다. 즉 바깥 모습은 상인이지만 속은 투철한 선비 정신으

20) 擇里志「四民總論」참조.

로 무장되어 있었다. 보통의 상인이란 자기 잇속에 눈이 어두워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이 다반사이겠지만, 허생은 모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奉公精神을 보임으로써 精神은 철저히 선비였던 것이다. ‘선비의 도를 잃지 않은 상인’ 이는 허생의 상행위가 지니는 진면목이라 하겠다. 그러면 같은 상인이면서 속은 선비인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함이 좋을까? 여기엔 개방적인 선비상에 대한 연암의 각별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내지 선비는 아래로는 農工과 함께 서고 위로는 王公을 벗하여, 지위는 등급이 없으나 덕은 아름다운 것이다. 한 번 선비가 독서하면 은택은 四海에 미치고, 공은 만세에 드리운다. 易에 만하기를, ‘나타난 용이 땅 위에 있으니 천하가 문명하다.’고 한 것은 그 독서하는 선비를 일컬음일지. 그러므로 天子는 原土이며, 原土는 사람을 살리는 근본이다. 그 벼슬은 天子요, 그 몸은 선비이다. 그러므로 벼슬에는 고하가 있더라도 몸은 변화한 것이 아니요, 지위에는 귀천이 있더라도 선비된 몸은 원대대로이다. 그러므로 벼슬과 지위가 선비에게 더해지더라도, 선비가 벼슬과 지위로 옮겨 변하는 것은 아니다.²¹⁾

선비는 농공과 함께 서고 왕공과 벗한다고 했으니, 사회의 각 계층에 두루 응할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의 벼슬과 지위에 高下貴賤이 있을지라도 그 신분은 변할 수 없다고 했으니, 불변의 존재이다. 독서한 선비가 세상에 나오면 그는 나타난 용(見龍)이 된다. 나타난 용은 大人으로서 천하에 문명을 펼 수 있다. 요행히 때를 만나 천자의 지위에까지 오를지라도, 그러나 선비된 몸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비록 때를 만나지 못하여 在野에서 농공상의 천한 지위에 있을지라도 역시 몸은 어디까지나 선비라는 것이다. 고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변함 없는 자기 자리, 모든 계층에 두루 응하면서도 불변하는 이 자리를 무어라 해야 할까. 하나의 지위에 고착하여 폐쇄되지 않고 두루 융통하는 이 자리는 마치 莊子가 말한 道樞의 자리와도 같다.²²⁾ 곧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상대적 자리에서 떠나 홀로 우뚝 선 절대적 자리인 것이다. 절대란 자기의 현상계 속 상대를 끊어버렸으므로 무한히 자유로운 위치이다. 상대적 자리는 나와 너에 간히고, 임금과 신하에 간히고, 고하와 귀천에 간히는 폐쇄고착된 것인 반면, 절대적 자리는 그러한 상대성의 원리에서 떠나 어느 한 상대에게 매이지 않고 두루 응할 수 있는 개방된 자유가 주어진다. 절대적 세계관이 지닌 이러한 개방성은 결국 莊子의 말처럼 절대 진리인 道²³⁾를 깨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莊子의 道樞와 같은 사고법이 연암의 선비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년 이후로 연암이 도교에 출입한 글을 남겼다고 한 것이나²⁴⁾, 실제로 그의 여러 글들에서 老莊의 영향을

21) “夫士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 易曰見龍 在田 天下文明 其謂讀書之士乎 故天子者原土也 原土者生人之本也 其爵則天子也 其身則士也 故爵 有高下 身非變化也 位有貴賤 士非轉徙也 故爵位加於士 非士遷而爵位也.” (燕巖集 卷10, 「原土」).

22) 莊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彼是莫得其偶 謂之道樞 樞始得其環中以應無窮 是亦一無窮 非亦一無窮也.” (莊子 「齊物論」) 여기서 彼와 是는 다 상대적 대립을 뜻하는데, 道樞는 그러한 상대적 대립과 폐쇄성을 극복하는 절대적 자리이다.

23) 이 절대 진리에 대해 道教에서는 달리 ‘天下母’라 하고, 佛教에서는 ‘最初一句子’ 혹은 ‘最清淨法界’라 하고, 儒教에서는 ‘太極’이라 하는데, 모두 같은 것이다.

24) “中年以後……出入莊佛二家者有之.” (過庭錄, 韓國漢文學研究 7집 40쪽).

받은 것이 많이 보이는 점으로 볼 때, 莊子와 같은 사고법을 깊이 체득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허생전에서 보이는 허생의 선비의식은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절대적 세계관에 입각한 개방적 선비의식으로 일관되어 있다. 집에서 독서를 하는 선비의 모습에서 장사하는 선비로, 장사하는 선비에서 서민을 상대로 治人하는 선비로, 다시 돌아와 부자와 권세가를 만나면서 治道를 펴는 선비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허생은 한 번도 선비다운 모습을 흐트리는 일이 없었다. 선비가 상행위를 하는 ‘개방적 선비상’도 결국 연암이 지닌 이러한 得道의 경지에 선 절대적 세계관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방적 선비상’은 종래 士農工商의 상대적 신분속에 간혀 상대성이라는 제한된 벽을 넘지 못한 선비의식을 깨고, 모든 신분에 두루 응하는 得道한 선비의 절대적 대자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道樞의 절대적 자리에서, 득도한 선비가 두루 만사에 차별없이 응하는 개방적 모습은 앞서 언급한 진통도덕인 ‘信’이 모든 덕목에 두루 응하는 개방성을 지니면서 스스로의 절대적 자리, 五行 중의 중앙인 土의 자리를 유지하는 모습과 매우 닮았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둘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다. 연암이 「一夜九渡河記」에서 “나는 이제야 道를 알았다.”고 한 말이나, 만년에 자주 “朝聞道면 夕死可矣라”²⁵⁾고 한 말은 그가 전생애에 걸쳐 道를 진지하게 추구하며 사색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도를 추구하는 선비로서 莊子의 道樞와 같은 경지를 사모했거나 깨달았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고, 道는 天道와 다르지 않고, 천도는 至誠이며 지성은 또한 信이라고 볼 때, 得道의 절대적 자리에서 마음껏 개방되는 선비의식은 마땅히 信을 그 바탕으로 깔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信의 덕목을 소중히 여기는 진통의 선비상과 득도의 자리에서 모든 폐쇄적인 것을 깨뜨리고 만사에 두루 응하는 개방적 선비상은 이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허생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날과 씨가 되어 짜여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修己治人の 學을 배운 허생이 治人하는 과정에서 ‘信’의 덕목을 주장하는 진통 선비상을 보여주고, 종래의 모든 상대적 폐쇄에서 벗어나 得道의 절대적 자리에 선 개방된 선비상을 제시한 것은, 작품을 修己治人の 구조로 분석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던 작은 결과였다. 분석의 결과 수기와 치인의 구조로 된 허생 이야기는 연암의 선비 정신이 섬도 있게 녹아든 이야기였다. 허생이 보여주는 두 가지의 선비상은 그대로 연암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연암이 주장하는 信의 ‘진통 선비상’과 得道의 자리에 선 ‘개방적 선비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둘이면서 하나였다. 득도의 절대적 자리는 바로 信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허생 이야기는 허생이라는 한 선비가 莊子의 道樞와

25) “晩年屢言 朝聞道夕死可矣之言 益覺有味”(過庭錄, 韓國漢文學研究 7집 73쪽).

같은 得道의 절대적 자리에서 ‘信’의 덕목으로 두루 事物에 응하는 개방된 선비상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Ⅶ. 結 論

이 글은 허생의 삶이 조선조 선비의 독서 목적인 修己治人の 실천윤리 구현에 있음을 착안하고, 이에 글을 이해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분석해 본 것이다. 그리고 분석의 결과로 드러난 허생의 삶 속에는 ‘信’의 덕목을 바탕으로 한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개방된 선비상이 현현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허생은 집을 나가기 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처녀처럼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며 독서하는 소위 雅士의 모습이었다. 물 속에 잠긴 龍이 때를 기다리며 修己하는 모습이었다. 집을 나온 후의 허생은 당대의 보편적 선비 관념으로는 매우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상행위를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함으로써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無人空島에서 治道를 폈다. 허생을 만난 서민들이 그 은택을 입는 모습은 주역에서 大人이 지상에 나타난 龍의 모습으로 四海에 혜택을 드리우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허생의 治人에는 한계가 있었다. 正德을 이루는 일까지는 완수 못했던 것이다. 이는 때가 아닌 시기에 출현한 용이었기 때문이다. 돌아온 허생은 독서에만 머물지 않았다. 계속 남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경륜을 폈다. 그의 治人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나보다 못한 남을 나처럼 만들어 주는 일이나, 남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도 역시 치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하겠으나, 이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사대부 사회의 완고한 기존관념을 깨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 역시 때가 아닌 시기에 지상에 나타난 용이 뜻을 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무인도에서의 한계와 집권층 사대부에 대한 이러한 한계는 선비 허생의 능력의 한계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에서 그 원인을 찾음이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다.

허생은 修己와 治人の 삶으로 선비 본래의 길을 걸었는데, 이 삶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선비의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서민들과 부자인 변씨 그리고 사대부 이완에 대한 허생의 선비다운 모습은 五常 중 ‘信’의 덕목으로 대표되었다. 한편으로는 名分과 實相이 어긋나는 존재를 꾸짖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명실이 상부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드러난 ‘信’은 조선조 선비들이 지켜야 할 오랜 전통을 지닌 생활 윤리였다. 특히 작자인 연암은 이 ‘信’을 五行의 철학적 논리 위에 두면서까지 각별히 생각했는데, 작중 인물 허생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허생은 그가 접한 상하의 신분 층위에 개방된 자세로 두루 응하였는데, 특히 그의 상행위는 선비도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면서 개방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상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장사꾼으로서의 그것

이 아니라, 奉公精神에 투철한 선비로서의 상행위였다. 즉 겉모습은 장사꾼이지만 정신은 선비였던 것이다. 어떠한 선비였는가 하면, 得道の 경지에 서서 현상계의 상대에 의해 폐쇄되지 않은 절대적 자유를 지닌 선비였다. 벼슬과 지위야 어떠하든 ‘선비정신’이라는 절대적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었다. 莊子의 ‘道樞’처럼 고리의 중앙에 위치하여 삼백육십 도로 회전하며 주위의 일체 상황에 두루 응하여 자신의 짝을 여윈 경지였다. 홀로 섰기에 외로운 듯도 하고, 두루 만물에 응하기에 만물과 하나인 듯한 절대적 개방성은 허생의 상행위에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이다.

한 선비가 보여 준 ‘信’과 ‘개방성’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이 둘은 절대 진리(道)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두 양상이었다. 즉 자리를 같이 하기에 돌이면서 하나인 존재였다. 道를 추구하는 선비의 참다운 모습은 바로 이 ‘信’과 ‘開放性’에 있었고, 허생은 그것을 잘 보여준 선비로 평가될 수 있다.